

## 전덕기 선생 애적이

편 집 실

- 1875년 (음)12월 8일 : 서울 정도에서 부친 전한규(全漢奎)와 모친 임씨(林氏)와의 외아들로 태어나다.
- 1884년(9세) : 8월에 부친이 별세한 지 3개월 후인 11월에 모친이 별세하다. 북창동에서 '숫 장수'를 하던 숙부 전성여(全成汝) 집에서 17세까지 양육되다.
- 1892년(17세) : 정동 선교사 집에 돌을 던졌다가 오히려 공손한 말로 '주를 믿으라'는 권면을 듣고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으며, 삼촌의 주선으로 스크랜턴의 시(施)병원 직원이 되어 스크랜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사들의 신앙 지도를 받게 되다.
- 1893년(18세) : 스크랜턴 가족이 병원과 집을 상동으로 옮기고 상동 교회를 설립하자 함께 이사하다.
- 1895년(20세) : 조학선(曹學善)의 딸인 조정식(曹貞植)과 결혼하다.
- 1896년(21세) :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다.
- 1897년(22세) : 미 감리회 입교인이 되다. 스크랜턴 대부인이 상동에 공옥여학교를 설립하고 상동교회에 엡윗 청년회(만엘루 청년회)가 조직되자 이에 참여하다.
- 1898년(23세) : 상동교회 속장이 되었으며, 맏아들 무술(武述, 일명 鎭宅) 출생하다.
- 1899년(24세) : 상동교회에서 공옥남학교를 설립하다.

- 1900년(25세) : 상동교회 유사 재정부원으로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한편, 교회에서 열린 신학회에 참석하다.
- 1901년(26세) : 상동교회 권사가 되었으며, 둘째 아들 순경(順敬, 일명 鎭垣) 출생하다.
- 1902년(27세) : 미 감리회 한국선교회에서 본처 전도사 1년급이 된다.
- 1902년 6월 13일 : 정동교회에서 열린 아펜젤러·조한규 추도식에서 대표 기도를 하다.
- 1903년(28세) : 미 감리회 한국선교회에서 본처 전도사 2년급이 되고 서울 구역 전도사로 파송되었으며, 엽윗 청년회를 재조직하여 회장에 선임되다.
- 1903년 11월 8일 : 정동교회 보호여회 3회 창립 기념일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다.
- 1903년 12월 16일 : 미 감리회 직인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다.
- 1904년(29세) : 미 감리회 한국선교회에서 본처 전도사 3년급이 되어 서울 구역 협동 목회자로 파송되었으며, <신학월보> '엽윗회 란'의 편집 책임을 맡아 논문 '맛당히 깨울 일'을 발표하다.
- 1904년 10월 15일 : 상동 청년학원을 설립하고 성경과 종교 과목을 맡아 교수하다.
- 1905년(30세) : 상동 청년회에서 이범수, 박장현을 멕시코 동포 시찰단으로 파송하였으며, 상동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베풀다.
- 1905년 6월 25일 : 미 감리회 한국연회에서 해리스 감독에게 집사 목사 안수를 받다.
- 1905년 11월 1일 : 스크랜틴이 엽윗 청년회를 해산시키다.
- 1905년 12월 5일 : 상동 청년학원에서 <수리학잡지>를 발행하다.
- 1906년(31세) : 미 감리회 연회에서 상동교회 부목사로 파송하다.
- 1906년 6월 25일 : 상동 청년학원에서 <가령잡지>를 발행하고 '술의 해

- 됨, '내외간에 화목할 일', '속기를 해석함' 등 논문을 발표하다.
- 1906년 11월 20일 : 상동 청년학원 안에 일어(日語) 야학 강습소를 개설하다.
- 1906년 11월 27일 :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'야소교(耶蘇教)가 구폐를 제거함'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하다.
- 1907년(32세) : 광무회(光武會)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한편, 신민회 조직에 참여, 중앙평의회 위원과 재무, 서울 총감으로 활약하다. 또 상동 청년학원에서 하기 국어 강습회를 열어 무료로 실시하고 공옥소학교 안에 '사립국문학교'를 설립하다. 셋째 아들 진수(鎭守) 출생하다.
- 1907년 2월 25일 : 독립관에서 개최된 국민 연설회에서 '벌률은 치안(治安)의 기관'이란 제목으로 연설하다.
- 1907년 2월 27일 : 상동 청년학원 안에 국채보상기성회(國債報償期成會) 수전소(收錢所)를 설치하다.
- 1907년 3월 25일 : 정동교회 진리연구회 주최 강연회에서 '국지부강(國之富強)은 재어교화(在於教化)'란 제목으로 강연하다.
- 1907년 4월 30일 :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'희망과 실망'이란 주제로 연설하다.
- 1907년 6월 14일 :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다.
- 1907년 6월 18일 : 미 감리회 연회에서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되다.
- 1907년 7월 6일 : 자결한 민족 운동가인 정재홍 장례식에서 기도하다.
- 1907년 11월 7일 : 상동 청년학원 안에 속성 야학교인 정칙(正則) M.L야학교를 설치하다.
- 1908년(33세) :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의사부원, 이사, 종교부원을

말다.

1908년 1월 23일 : 경성고아원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고아원 현황을 보고하다.

1908년 2월 8일 : 국민예복의정회(國民禮服擬呈會) 발기인으로 참가하다.

1908년 3월 3일 :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청년 연합 기도회를 상동교회에서 베풀다.

1908년 3월 31일 :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연설하다.

1908년 6월 : 영변 지방을 순행 전도하다.

1909년(34세) : 미 감리회 한국연회에서 '상동 구역' 선교 상황을 보고하다.

1909년 8월 17일 : 청년학우회를 조직하고 공옥학교 교장이 되다.

1910년(35세) : 공옥보통학교 3층 벽돌 건물을 낙성하다.

1910년 1월 16일 : 연화봉 교회당에서 '야소교지화급(耶蘇教之化及)'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다.

1910년 3월 : 인천교회 사경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각혈하여 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알다.

1911년(36세) : 협성신학교에 입학하다.

1911년 3월 2일 : 미 감리회 경성 지방회에서 장로품을 추천하기로 하다.

1911년 4월 : 미 감리회 한국연회에서 장로 목사로 안수받고, 운산에 있는 스크랜턴에게 가서 치료를 받다.

1911년 8월 2일~12일 : 조선목사청년회 역원 일본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각지를 돌아보다.

1911년 10월 18일~21일 : 한국 감리교회 대표로 스웨어러와 함께 일본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다.

1911년 12월 20일 :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'기독교의 기초되는 도

- 리'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다.
- 1912년(37세) : 미 감리회 한국연회에서 선교회 재정위원, 남 감리회 구역조정위원, 회당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다.
- 1912년 1월 6일 : 미 감리회 남지방회 교육이사회 위원이 되다.
- 1912년 4월 16일 : 서울 박물관에서 번역서인 《日日의 力》이란 기도집을 출판하다.
- 1913년(38세) 넷째 아들 진국(鎭國) 출생하고, 허리에 악성 종기가 나서 수술하다.
- 1913년 4월 13일 : 상동교회의 목사 주택에 화재가 나다.
- 1913년 6월 : 미 감리회 연회에서 기독교인 묘지를 마련하고 추수감사절 일치 제정을 헌의하다.
- 1913년 11월 16일 : 상동 청년학원의 마지막 졸업식을 베푼다.
- 1914년 3월 23일 : 상동교회 주택에서 39세를 일기로 별세하다.
- 1914년 3월 28일 : 상동교회에서 장례식을 베푼고 경기도 고양군 두모면(豆毛面) 수철리(水鐵里)에 안장하다. 그러나 후일 일제의 강제이장 요구에 따라 화장하여 유골을 한강에 뿌리다.
- 1914년 6월 8일 :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린 미 감리회 연회에서 추도식을 베푼다.
- 1922년 6월 5일 : 공옥학교 동창회에서 기념비를 제막하다.
- 1962년 :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으며,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시다.

〈감수 : 이덕주〉